



아브라함이 그 땅 이들을 여종인 이레라 하겠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즈기를 여종인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22:14)

어느 날 아침 언어 공부 시간에 '썸김' 형제가 갑자기 숙제를 평소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매일 크마에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 양을 배나 더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더 많이 주느냐고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능청스럽게 하는 말이 휘발유 값이 너무 올라서 숙제도 올렸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캄보디아는 모든 것이 오르기 때문에 숙제가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정말 캄보디아는 인상(引上)중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 기름 값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왔던 2년 전에는 휘발유 1리터에 우리 돈으로 500~6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꼭 두 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리터당 우리 돈 천원이 넘었습니다. 기름 값이 오르면 그 여파는 거의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며칠 전에는 다음 학기부터 아이들의 학비가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기름 값 인상은 아이들 학비 인상으로까지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의 5월 달은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12일의 불교 명절, 13일부터는 국왕의 생일로 거의 한 주간 정도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공휴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하루만 쉬고 계속 수업을 하였고 저희들의 언어 공부도 쉬지 않고 계속 하였습니다.

요즘 언어공부는 성경 읽기와 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다른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캄보디아는 지금도 왕이 있고 왕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용하는 말과 평민이 사용하는 말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임금님의 식사를 수라라고 부르듯이 캄보디아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왕이 사용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이 같은 궁중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평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적인 언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궁중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마치 새로운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듯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설교를 하기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야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매일 비가 내려야 하는데 하루 이틀 비가 오면 또 하루 이틀 정도는 비가 안 옵니다. 메콩 강의 수위도 건기와 다름없습니다.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라도 비가 좀 더 많이 내려야할 뿐만 아니라, 메콩 강물에 목숨을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 시작을 위한 재정은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할 장소를 찾기 위한 방향(?)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역지를 정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근처가 적지입니다. 둘째로 예배와 공부를 위한 주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의 사역지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살펴 좋은 사역지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마음씨 좋은 집 주인을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요.

며칠 지나면 아이들 학교가 방학을 하고 학년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한 학년씩 진급하여 현섭이는 9학년, 현찬이는 7학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이면 한국은 여름의 문턱에 있겠군요. 캄보디아만큼은 덜 덥겠지만, 장마와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 모든 동역자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늘 활기가 넘치길 기도드립니다.Ω

2006년 6월 9일

프놈펜에서 김성길, 김심영, 현섭, 현찬 선교사 가족 드림



♥ 기 도 제 목 ♥

- 1) “이슬 청소년교회” 사역과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월 운영비와 사역을 위한 신실한 현지인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언어 공부를 위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를 가르치는 두 지체, 썬김(형제)과 빼으(자매)가 지혜롭게 언어 공부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재정적인 안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 주 파송 교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사역에 비전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현섭이와 현찬이의 학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섭이가 사춘기인가 봅니다. 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정서적인 안정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섭이와 현찬이의 학업과 영육 간에 균형 있는 성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제 옥포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준비 중입니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지를 잘 이해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 (5/1-5/31)

2006.05.30	찬양이넘치는교회	200,000
2006.05.23	충무교회	550,000
2006.05.18	옥포제일교회	200,000
2006.05.04	경남동노회 (2005.12-2006.5)	1,500,000
	개인후원	420,000
계		2,870,000

(자세한 선교 후원 내역은 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국내 연락처

재정 관리자 / 이학구 집사 (02-921-0841/017-343-0841)

E-mail : achan2369@naver.com

문서 관리자 / 현충헌 형제 (016-229-231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49 코오롱 레이크폴리스2 A동 918호

E-mail : hcoramdeo21@yahoo.co.kr

☞후원계좌

국민은행 653001-04-037827 김성길

☞캄보디아 연락처 / Kim, Seong Gil

P.O Box 2454 Phnom Penh 3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001-855-12-299386 / 001-855-12-1904418

(우편물을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전화번호를 주소와 함께 적어 주시고, 영문 이름이 틀리지 않도록 적어 주십시오. 영어 이름이 틀리면 우편물 찾기가 힘듭니다.)

☞이메일 / sermonator@dreamwiz.com

☞홈페이지 / <http://cambodian.cc>